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배출전망(BAU) 대비 30% 감축” 최종 결정

정부는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BAU) 대비 30% 감축”으로 최종 결정했다.

목표 수준은 국제적으로 권고하는 최고 수준을 채택하되, 방식은 확실하게 신축적인 비의무감축국(개도국) 방식으로 감축하게 된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비의무감축국에 대해서는 경제성장의 여지를 고려하면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축적인 배출전망(BAU)대비 감축을 권고했다.

앞으로 감축목표는 비의무감축국(개도국) 방식인 BAU 대비 방식으로만 표기하고, 목표추진 과정에서 산업경쟁력에 대한 배려를 할 계획이다.

감축 추진시 상대적으로 감축여력이 많은 건물·교통 등 비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감축노력을 강화하여, 경제성장 및 일자리와 직결되는 산업경쟁력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KEA

KEPCO, APR1400 NRC DC 취득 본격 추진

KEPCO(한국전력, 사장 김쌍수)는 11월 1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위원장 Mr. Gregory Jaczko)와 한국형원전인 APR1400의 설계인증(DC) Initial Pre-Application Meeting을 개최했다.

양 기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APR1400 설계와 인허가 절차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심사 절차 및 일정에 대해 협의하였다.

현재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GE의 ESBWR, 프랑스 아레바의 US-EPR, 일본 미쓰비시의 US-APWR 등 4개 노형이 NRC에 DC 취득을 신청하여 심사를 받고 있으며, 한국은 이번에 APR1400으로 DC 취득을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다.

KEPCO는 APR1400이 1997년 NRC로부터 DC를 취득한 웨스팅하우스의 System80+ 노형을 개량하고 NRC의 규제요건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개발되었고, 2002년 한국의 원자력 규제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표준설계인가(SDA)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안전성 검증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KEA